고유가 지속에 유사 석유제품 기승

10건 가운데 9건 비정상 석유 사용 ... 단속 강화로 적발건수 늘어나

고유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유사 석유제품 판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월16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품질관리원이 2006년 1-5월 도로변 판매업자, 운전면허 학원과 버스·화물업계를 비롯한 자체소비처 등 유사 석유 취급처 2094곳을 대상으로 2873건의 검사를 벌인 결과, 95.8%에 해당하는 2066곳에서 91.3%인 2624건의 비정상 비율을 보였다.

결국 검사 대상 10건 가운데 9건 이상이 비정상적인 석유제품을 사용한다는 의미이며, 2005년 1-5월의 비정상 비율 86.5%에 비해 4.8%p 가량 증가한 것이다.

특히, 주유소, 대리점, 소규모 판매업소 등 정상적인 유통단계를 밟은 석유제품 취급처 1만3147곳에서 3만 1521건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0.89%의 비정상 비율을 나타내 0.02%p 증가했다.

이는 정상적인 일선 판매업소에서도 미미하게나마 휘발유나 경유에 등유를 섞어서 판매하는 등의 암체 상흔이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몇 년 사이 유사 석유제품이 급증세를 보여온 것은 사실이지만 주유소 등 정상적인 유통처에서는 최근 들어 크게 감소하는 추세”라며 “다만 도로변 판매업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적발 건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 유사 석유제품 판매가 전반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7/19>